나주시 노안면-동구 서남동, 19년 우정 이어간다

지역축제·고향사랑기부제 등 교류 활성화 논의

2025 충장축제를 방문한 나주시 노안면 관계자들 사진 /나주시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노안면과 동구 서남동은 최근 서남동 주민자치회 사무실에서 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올해로 자매결연 19년째를 맞은 노안면과 서남동은 그동안 지역 간 상호 방문과 각종 행사 참여 등을 통해 우호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노안면장과 서남동장을 비롯해 양 지역 주민자치회 관계자 등 15명이 참석해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양 지역 간 지속적인 교류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축제 상호 방문 일정과 고향사랑기부금 상호 기탁식 추진 일정 등이다.

양 지역은 지역축제 개최 시 상호 방문을 통해 지역의 문화와 특산품을 함께 알리는 등 상생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또한 고향사랑기부금 상호 기탁을 통해 자매결연도시 간 우의를 다지고 지역발전을 응원하는 뜻을 함께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 지역의 주민자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지속적인 소통과 만남을 통해 문화·축제·지역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자매결연의 내실을 다져나가기로 했다.

박소연 노안면장은 "19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이어 온 서남동과의 소중한 인연이 주민자치회 간 교류로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두 지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성택 기자

담양, 책과 사람 잇는 '독서문화진흥 캠페인' 운영

담양군은 군민들이 일상에서 책을 가까이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독서를 즐길 수 있도록 '2026 담양 독서문화진흥 캠페인' 참여자를 모집한다.

캠페인은 오는 9월 14일부터 11월 9일까지 담양문화원과 양매제 일원에서 진행된다. 케이-라이브러리(K-Library) 특강을 비롯해 독서 소그룹 인도자 과정, 전방향 북큐레이션 과정, 책처방 프로그램, 북큐레이션 전시 등 책을 매개로 배우고 소통하는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첫 일정인 '케이-라이브러리(K-Library) 특강'은 9월 14일 오후 2시 담양문화원에서 열리며, 인공지능(AI) 시대 도서관의 역할과 변화에 대해 살펴본다.

/강종연 기자

화순군, 지역아동센터와 '공감소통의 날' 간담회

전남광주 화순군은 지난 7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군 지역아동센터연합회 회원들과 '공감소통의 날' 간담회를 열고, 센터 운영의 어려움과 아동 돌봄·복지 향상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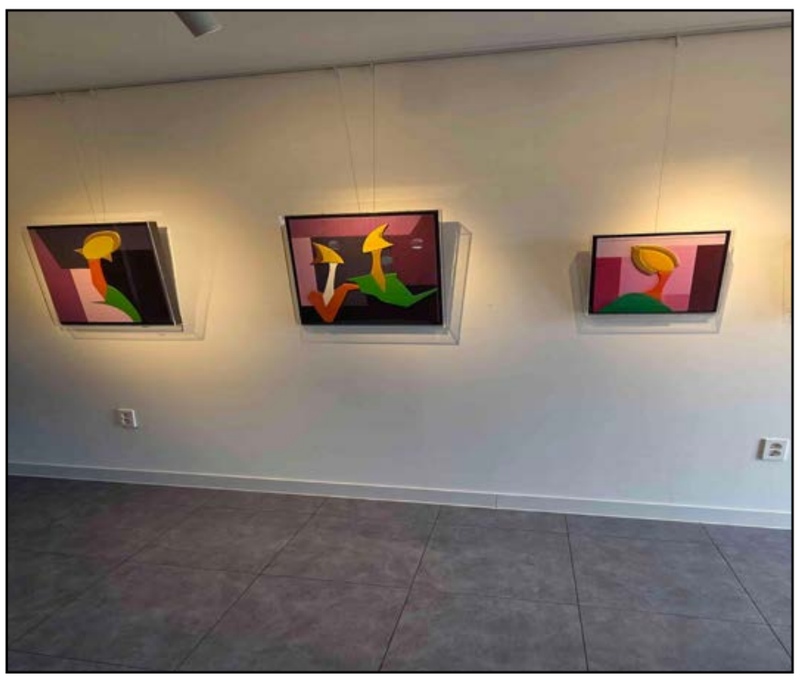
이번 간담회는 '군민과 함께 화순의 미래로!'라는 군정 슬로건 아래 군민이 정책의 주인이 되는 행정을 실현하고, 지역아동센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임지락 군수를 비롯해 가족정책실장, 군 지역아동센터연합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센터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공유했다. 또한 아동 돌봄과 센터 운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남호경 기자

영광군, 「2026년 거점별 작은미술관 3차 전시」 개최

2026년 9월 3일(수)부터 시작



백수작은미술관 사진 /영광군청 제공

영광군(영광군수 장세일)은 일상 속 군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넓히기 위해 '2026년 거점별 작은미술관 3차 전시'를 지난 9월 3일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거점별 작은미술관 4개소(백수 노을광장, 염산면사무소, 법성 폭스빈앞, 법성 야외무대)에서 진행될 '3·4차 전시 작품 공모'선정 결과를 지난 8월 14일 군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바 있다. 이번 3차 전시는 모두 공모 선정작으로 채워져 지역 문화예술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성작은미술관(폭스빈앞)은 〈록키산맥의 찬란한 순간들〉 사진 전시, 법성작은미술관(야외무대)은 〈바람과 햇살이 머무는 고향 영광을 그리다〉 회화 전시, 백수작은미술관은 〈여인, 내면의 풍경〉 조각 전시, 염산작은미술관은 〈기억과 현재의 사이에서〉 자개 전시로 진행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3차 전시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우수 작가들의 작품을 지역 주민들에게 선보이게 되어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이어질 4차 전시에도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영광군 작은미술관 전시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영광군 대표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문화예술팀(061-350-569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주민들이 일상 가까이에서 다양한 작품을 감상하며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진 기자

보성, 벌교읍민회 지금주 회원 발전 기금 전달식

향토음식문화 발전과 지역사회 공헌 이어오며 읍민 화합에 앞장

지난 8월 31일 보성군 벌교읍 벌교읍민회 사무실에서는 벌교읍민회 발전을 위한 뜻깊은 기금 전달식이 열렸다.

이날 전달식에는 김길두 벌교읍민회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금주 회원이 벌교읍민회 발전기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발전기금 전달은 평소 지역사회와 벌교읍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해 온 지 회원이 고향과 지역민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나누면서 마련됐다. 특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역을 생각하는 마음을 실천했다는 점에서 참석자들에게 더욱 큰 의미로 다가왔다.

기부금을 전달한 지 회원은 최근 암 투병이라는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교발전과 읍민 화합을 위해 소중한 마음을 전했다.

오랜 시간 지역에서 생활하며 맺어온 인연과 고향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벌교읍이 더욱 발전하고 읍민들이 서로 화합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기금을 전달했다.

벌교읍민회 발전기금 전달식 사진 /보성군청 제공

지 회원은 벌교읍에서 수십 년간 식당을 운영하며 지역의 향토음식 문화를 널리 알리는 데 크게 이바지해 왔다. 오랜 세월 식당을 운영하면서 지역 주민은 물론 벌교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벌교의 맛과 정을 알리는 데 앞장섰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향토음식 문화 발전에도 꾸준히 관심을 가져왔다.

이번 기금 전달식을 계기로 벌교읍민회 회원들은 읍민회가 지역민의 화합과 소통을 이끄는 구심점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나가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김윤성 기자